

근대골목 형성이 주민 및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윤우·정수정

● 목차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지역
3. 연구방법

II.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및 개념

1. 도시재생사업의 등장배경
2.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III. 근대 골목의 배경 및 사업현황

1. 근대 골목의 배경
2. 근대골목의 사업현황
3. 근대골목투어의 현황

IV. 주민 및 상인의 생활에 근대골목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조사 결론

V. 결론 및 한계점

VI. 참고문헌

VII. 부록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래에 들어 도시 내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 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대구시에서는 2001년부터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구의 명소와 각종 골목에 대한 관광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중구청 관광개발과에 골목투어를 편입시켜 정부 예산을 받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골목투어 관광이 시작되게 되었다. 2011년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대회가 기폭 역할을 하여 관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이끌게 되었다. 이 후 '골목투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골목투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많은 지원을 받아 대구시 중구의 골목투어는 점점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점에 힘입어 대구시의 도시이미지는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근대골목이 도심재개발이 아닌 역사적 문화 콘텐츠로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에 있어 예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 및 상업을 행해오던 지역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구시에서 당시 근대골목투어의 파급효과 및 영향과 비교하여 상인 및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파급효과 및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진행하고 있는 골목투어 사업 발전에 참고할만한 자료와 상인 및 주민들의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대상 지역 (축척 1:15000 지도)

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2 연구 대상 및 지역

본 연구의 대상으로 대구시에서 지정한 근대 골목투어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1~5코스들 중 중첩되고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림1>에 표시되어있는 지역을 조사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문헌들을 연구,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필요성, 유형별 특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사례이자 도시재생사업의 예시인 근대골목에 관하여 소개할 것이다. 문헌연구는 국내 발표된 학술지, 학위논문 등을 비롯하여 근대골목에 관련된 서적과 중구청 홈페이지, 각종 인터넷의 자료를 통해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대구시 중구청에서 기대하는 파급효과 및 영향과 상반하여 근대화골목 주변의 상인 및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파급효과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로 제시되었으며, 근대골목 주변의 위치한 각각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의 5개의 척도로 나누어 체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하였다.

II. 도시재생사업 배경 및 사업현황

1 도시재생사업의 등장배경¹⁾

세계 2차 대전(1939~1945년) 이후 산업구조의 전환과 더불어 자동차 위주의 생활환경은 중심

1) 도시재생사업의 리스크 요인 분류 및 중요도 산정 ,2012.02 조재건

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교외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나가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업시설 또한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나아간 교외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교외화로 인한 도시 확장은 장거리 통근 및 수송으로 인해 교통의 혼잡, 자원의 낭비, 공해 유발 및 자연훼손 등의 생태계 파괴, 지역 정체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교외지역과 상반하여 도심부에 위치한 중심시가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상업기능 쇠퇴 및 소득 저하, 범죄 및 실업률의 증가, 도시경쟁력의 저하 및 도심지역 토지이용의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침체되어 있는 도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주택, 교육, 실업, 보건, 사회문제 등에 대한 도시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의 포괄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195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적 차원의 전략적 계획 및 정책 도입을 이끌었다.

표1. 도시재생정책 변천과정

구분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주요 전략과 경향	Master Plan에 의한 도시 노후지역 재건축, 교회 지역의 성장	1950년대 경향 유지, 교외 지역과 주변부의 성장, 사회복지의 초기시도	재개발과 근린단위계획에 관심, 주변 부개발의 지속	대규모 개발 및 재개발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	정책과 집행이 보다 종합적 형태로 전환, 통합된 처방에 대한 강조
주요활동과 이해관계자	중앙과 지방 정부, 민간개발업자와 도급업자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	민간부문 역할 강화	민간부문과 특별 정부기관의 중심, 파트너십의 성장	파트너십이 지배적
공간적 차원	지방 및 해당부지 차원의 강조	지역차원의 활동 등장	초기에는 지역 및 지방차원, 후에 지방 차원이 강조됨	80년대 초 해당부지 차원강조, 후에 지방차원을 강조	파트너십이 지배적
경제적 측면	공공부문 투자 (일부 민간부문의 투자를 동반)	1950년대 이후 지속된 민간투자의 영향력 증대	공공부문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민간 투자의 성장	선별적 공공자금을 받은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	공공과 민간, 자발적 기금간의 균형이 중요
사회적 측면	주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복지 증진	커뮤니티 위주의 시책과 보다 많은 권한 부여	선별적인 국가지원 하에서 커뮤니티 자활(self-help)	커뮤니티 역할의 강조
물리적 강조점	내부지역의 복원과 주변지역의	기존 지역의 재건과 병행하여	노후도시지역의 재개발 확대	대규모 재개발 및 신개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1980년대보다 신중한 개발 계획,

	개발	150년 시책 유지			문화유산과 자원 유지보전
환경적 접근	경관 및 일부 조경 사업	선별적인 개선	일부 혁신적인 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환경적 접근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적 지속성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 도입

2.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도시 재생의 사전적 정의는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²⁾

국회본회의³⁾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⁴⁾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부동산의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재개발·재생산 사업을 대신해서 <그림2>와 같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탄생시키는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다르게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공간 환경의 재개발을 넘어선 지역경제의 재건, 지역문화 부흥 그리고 조식적인 생활양식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정



그림 2 도시재생의 정의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11
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2013년 04월 30일 시행

4) 한국정책연구_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 완화 방안, 2013.9 박정우, 송태수

Ⅲ. 근대 골목

1. 근대골목 사업배경

대구시 중구는 중심상권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며 여러 주요 기관과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이다. 이곳은 대구시의 형성과 지금까지의 성장에 축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문화가 발전되고 존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근현대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2006년 전의 중구는 도시구조 재편성 과정에서 많이 쇠퇴하였으며 각종 도시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도심인구의 유출과 유통산업 환경변화는 도심상권을 축소시켜 지역의 침체와 쇠퇴가 가속화 되었으며 도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원도심의 고유한 문화와 자산을 주목하면서 역사 문화도시로 방향을 잡고 재생사업을 하게 되며 사실상 죽어가는 도심이었던 중구를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사업은 시민들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제도적 공백에 의해 방치되고 사라져가는 기존의 도심과 이를 기반으로 존속되어 왔던 도시문화자원의 중요성을 환기 시켰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새로운 세대들은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원도심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창고 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끄집어내듯 도심 속 자원들을 발굴하고 갈고 닦아 잘 보존하는 한편 행정, 전문가와 함께 도심 공간 저마다의 특징과 숨은 이야기를 찾아 스토리를 입히는 도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근대골목투어를 시작하였다.

2. 근대골목 사업 현황

대구근대골목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2007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2007년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화 기획, 컨설팅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선정이후 2007년 10부터 2008년 2월까지 진행한 학술 연구용역을 통하여 종합 계획 수립 및 세부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2008년에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9월에 완공되었다.

표2. 근대골목 사업현황 (역사가로 정비사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확보에 관한 연구, 이정호,박선명,김상희 2014.02)

구분	내용
사업명	대구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 조성사업
사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대구 중구청 도시관리과 공공디자인계
사업기간	2007년 6월 - 2009년 9월 (학술용역기간 2007.10.05. - 2008.02.25.)
사업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 이상화고택 - 계산동
사업배경	사라지고 있는 역사적 명소들을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성을 보전, 특화하여 정체성을 살리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사업목적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골목의 명소화 주민, 시민단체, 관이 공동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 관광명소로 활용
------	--------------------------------------------------------------------

3. 근대골목투어



그림 3 근대 역사문화 자원

출처 : 역사가로 정비사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확보에 관한 연구, 이정호,박선명,김상희 2014.02

대구근대골목은 대구시 중구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근대 대구 도심의 역사적 장소로 해방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심의 급격한 변화와 구도심의 환경적 쇠퇴로 인하여 그 성격이 점차 약화된 지역이며, <그림3>과 같이 유무형적인 근대 역사문화 자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 말고도 대구의 근대골목투어는 <그림4>와 같이 다섯 개의 정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약 14km에 달하며 모든 코스를 보던 것보단 각 코스별 중요 포인트를 둘러보는 게 더욱 좋다. 제1코스는 대구의 발전이 시작된 경삼감영과 일제 강점기 때 번성했던 북성로 거리를 중점으로 한 '경삼감영달성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제2코스는 '근대문화골목'으로 대구 근대 100여 년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코스이다. 제3코스는 각종 주얼리(jewellery)와 귀금속이 즐비하며 도심 중에서도 중심인 동성로가 포함되어 있다. 제4코스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찾아오는 김광석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패션한방길'이다. 마지막으로 제5코스는 '남산100년향수길'로 대구시에서의 천주교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다. 이처럼 다섯 코스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 주제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3. 근대골목 1코스 ~ 5코스

구분	투어코스
경삼감영달성길 (1코스, 3.25km)	·경삼감영공원 ~ 대구근대역사관 ~ 향촌동 ~ 복사동 ~ 북성로 ~ 삼성상회오피터 ~ 달성공원
근대문화골목 (2코스, 1.64km)	·동산 청라언덕(선교사주택) ~ 계산성당 ~ 이상화,서상돈고택 ~ 제일교회 ~ 영남대로 ~ 종로,진골목 ~ 화교협회(소학교)

패션한방길 (3코스, 2.65km)	·주얼리타운 ~ 동성로 ~ 남성로(약령사) ~ 서문시장
삼덕봉산문화길 (4코스, 4.95km)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삼덕동문화거리 ~ 김광석길(방천시장) ~ 봉산문화거리 ~ 대구향교 ~ 건들바위
남산100년향수길 (5코스, 2.12km)	·반월당 ~ 관덕정 ~ 상덕사(문우관) ~ 성유스티노신학교 ~ 성모당 ~ 샬트르성 바오로수녀원

출처 : 역사가로 정비사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확보에 관한 연구



그림 4 1코스 - 5코스 골목투어
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IV. 주민 및 상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영향

1 조사결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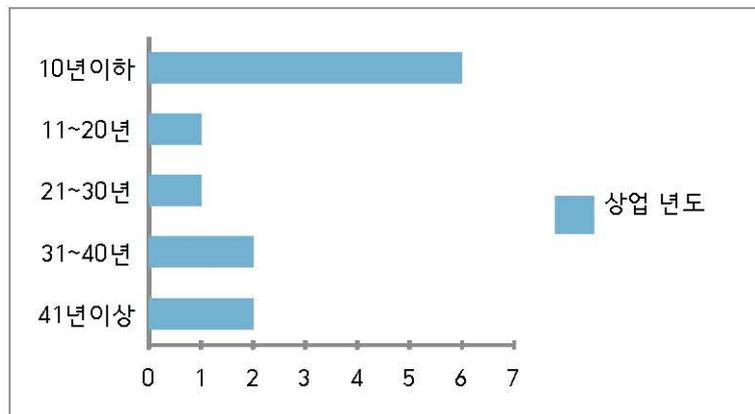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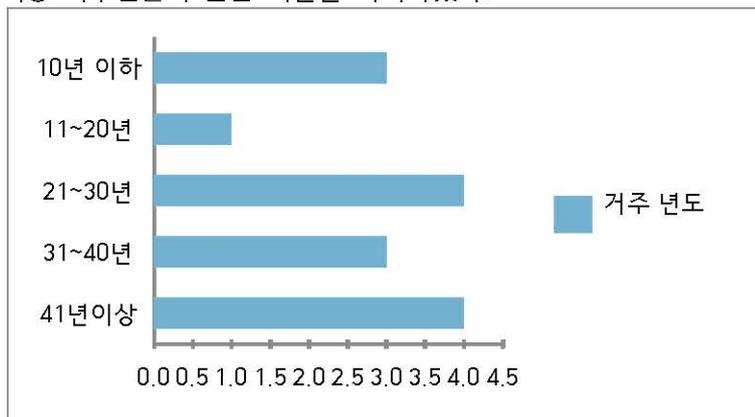
2014년 12월 2일과 1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근대골목 주변의 거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시 중심에 위치하여 지나가는 행인과 거주민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골목이 오래된 만큼 연세가 많은 거주민 및 상인들이 많아 설문지 받기,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업지 중에는 식당이 어느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약손님이 많아서 예약준비로 바빠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거주민 13명, 상인 12명에게 설문을 하였으나 표본 집단의 대다수가 20년 이상 거주 및 상업을 하신 분들로 연구 대상지의 변화를 몸소 느끼신 분들로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 대상지역을 도심 속의 관광지로 설정하였으며, 도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대구시가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2008년)한 이후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았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 및 상업을 할 것인지 유무와 그 유무에 따른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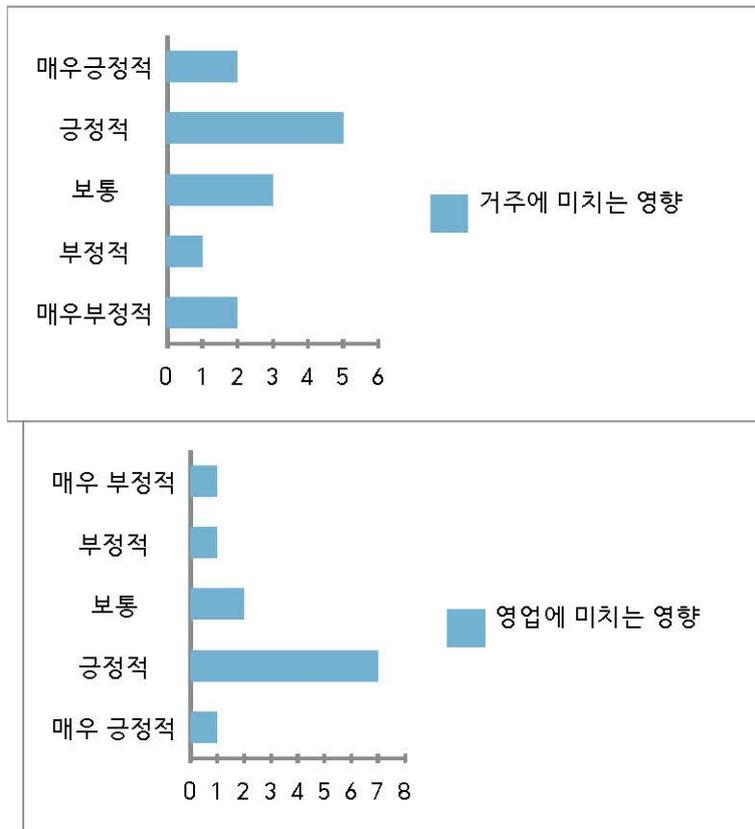
2. 조사내용

1번 문항으로 거주민의 거주년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림5>와 같이 21~30년 동안의 거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41년 이상 거주민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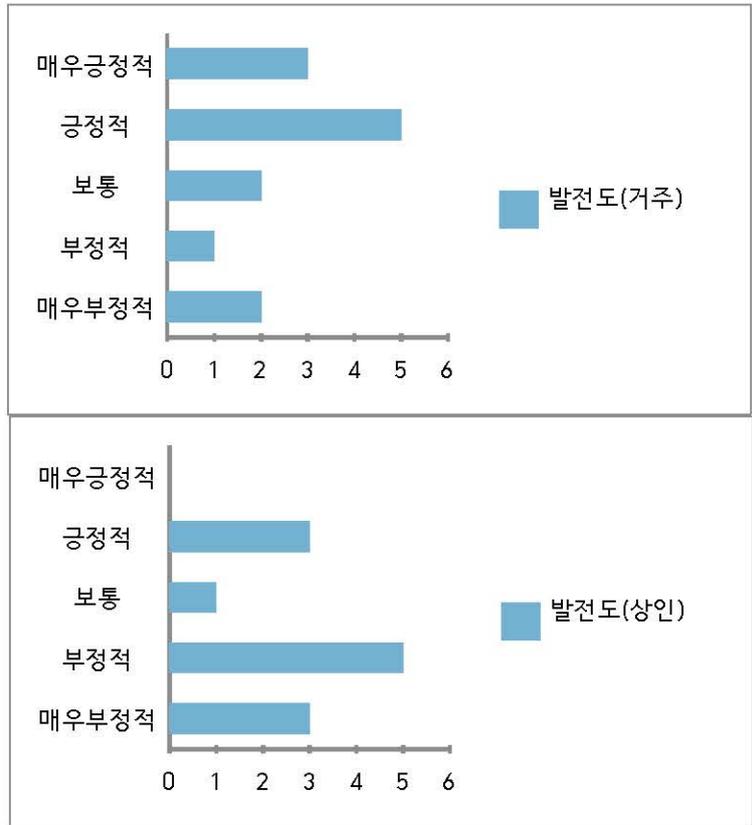
상인들은 상업년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 지역에서 얼마나 상업에 종사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림6>과 같이 10년 이하의 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41년 이상 상업하신 분들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번 문항으로는 “귀하의 거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거주하시는데 관광객 유입과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으며 응답자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그림7>과 같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이유로는 쇠퇴하였던 도시의 관광객 유입으로 활동적인 분위기로 전환 되었으며, 쇠퇴되어 잊혀져가던 원도심이 30~40년 만에 다시 발전되고 다시 중심지로서의 발달되어가서 좋다는 내용과 관광지화가 되어 구청에서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주어 깨끗해져서 좋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으로는 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제한하고 오래되어 집이 무너지고 무허가로 지붕을 덮어 형편없어 보인다는 생각과 관광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또한 상인들에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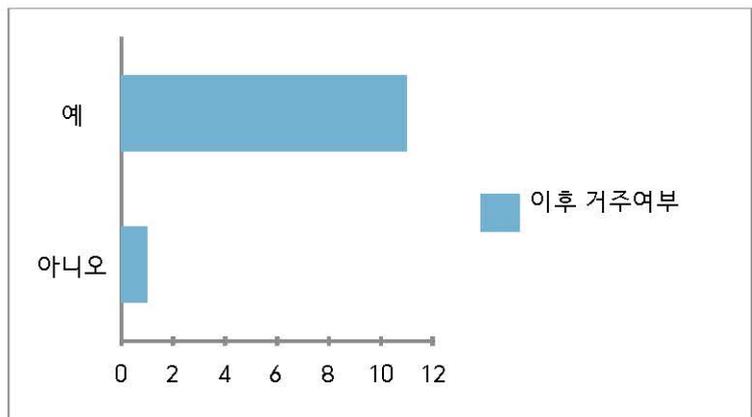


“귀하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관광객유입, 활동적인 분위기, 소음피해, 쓰레기증가 등 실질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으며 응답자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그림8>과 같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쇠퇴하였던 지역의 관광지 지정으로 인해 도심의 중심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리의 분위기가 활발해져서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몇몇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근대화골목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지가가 대폭 상승하였고, 약령시의 경우에는 약재상 사이사이에 커피숍, 미용실, 밥집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약골목의 균형이 붕괴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3번 문항으로는 “근대골목투어 전 후(2008년 기준)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2번의 질문과 연관되어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이 질문들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의 중에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는 점을 볼 수 있겠다. 상인들도 같은 질문에 <그림10>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위의 거주 지역 설문 결과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도 다수 있었다. 긍정적인 응답을 선택한 이유로는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상업지역에 세를 내면서 상업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대골목으로 지정 된 이후로 지가가 많이 상승하여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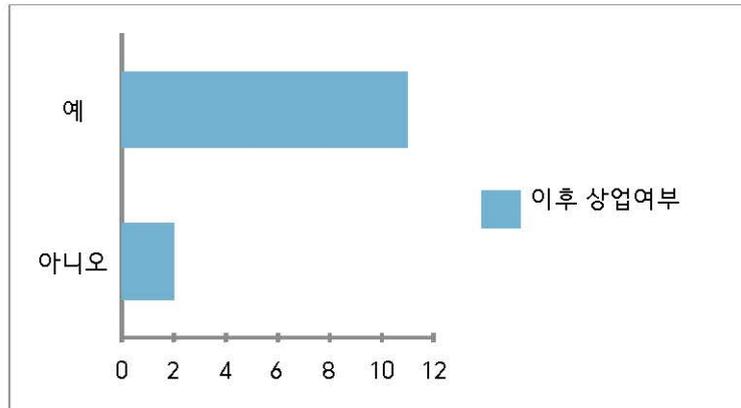


마지막 4번 질문으로는 “이후에 계속 거주 할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긍정적, 부정적인 의견에 차이 없이 생업이나 자택이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 거주한다고 대답하였고 상인들도 “이후에 계속 상업에 종사 할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며, 근대골목과는 관련 없는 건강상 문제로 상업을 더 이상 지속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조사 결론

오래되어 낡은 건물을 근대골목이라는 관광지로 묶여있어 재개발 하지 못하여 낡은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느꼈고, 낡은 건물과는 상반되게 관광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근



대골목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리의 분위기가 예전보다 활발해졌다. 관광지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었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상업 및 거주를 하는 사람은 지가가 올라서 도시재생사업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왔으나 반대로 세를 내면서 상업 및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높아진 지가로 인해 부담이 되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되었다.

V. 결론 및 한계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및 상인들과 소통하고, 정부 등 공공부문-주민 및 상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공공단체에서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하여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나아 가며 서로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 부산 외에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구시의 근대골목은 도새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근대골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긍정적인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활발한 분위기, 매출상승 등을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로 조사답변과 비슷하였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근대골목이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관광지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중구청에서 더욱 신경써줘서 전보다 깨끗한 거리가 유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되었다. 대구시 근대골목을 조사답변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왔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무조건 한 가지 목표로만 밀고 나아가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아가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민과 주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무조건 재개발·재생산을 하는 것 보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심지역의 고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도시재생 방식은 현재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되새겨 봐야 될 만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새것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많은데,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건물, 문화재 등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 있더라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VII. 참고문헌

- 류태희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로(路)의 여행 대구시 중구” 국토(구 국토정보),(구 국토정보 다이제스트) 387, 2014.1, 60-67 (8 pages)
- 이정호, 박선명, 김상희 “역사가로 정비사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확보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2(1), 2014.3, 67-81 (15 pages)
- 김지인, 이진욱, 최판길, 하재명 “장소의 진정성 개념에 기초한 전통문화거리의 이미지 조성에 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2(1), 2006.1, 195-202 (8 pages)
- 송은하 [구석구석 골목 여행 : 대구 중구 성내동 구제 골목~진골목]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다, 월간 샘터 510, 2012.8, 18-21 (4 pages)
- 이희상 “지역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 대구 원도심 골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2013.10, 728-749 (22 pages)
- 조재경 “도시재생사업의 리스크요인분류 및 중요도 산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학위논문 2012.2
- 박정우, 송태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 완화 방안” 한국정책연구 13(3), 2013.9, 133-148 (17 pages)
- 정재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지역과제” 경남정책 Brief , 2013.7, 1-8 (8 pages)